



미키 라오스

우리들의 이야기



윤지의 푸던맹



가족소개



우리는 아빠, 엄마, 언니 둘, 오빠 둘, 나, 동생 셋, 사촌동생 셋까지 13명의 대가족이다. 첫째 언니(분탄)와 둘째 언니(깨오)는 비엔티엔에서 일하느라, 둘째 오빠(뷔싸이)는 군인이어서 따로 살고, 첫째 동생(텍시)은 방비엥에서 주로 지내며 간간히 집에 들어온다.

가족소개



캅디(카약킹 안내원, 24)

- 인간 CCTV
같이 있지 않아도 내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음
혼자 나가면 바로 전화가 와서
가끔 좀 무섭다……



뷔싸이(군인, 22)

- 요리 좋아하는 남자
- 내 라오스 생활의 무한 조언자
- 유창한 일본어 실력을 보유하고
있음

가족소개



카이(슈퍼스타, 21)

- 윤지, 따담, 카이, 뽀뽀 등 확인된 이름만 4개인 이름부자
- 여기저기 사고치고 다녀서 가족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님
-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텍시(요리사, 19)

- 드라마 보기, 화장하기를 즐기는 소녀
- 새벽 시장메이트
- 내가 종종 네일아트를 해 준다.

가족소개



끼앙(수다쟁이, 18)

- 나의 수학&일본어&기타 제자
- 1일 1그릇 땀꺼삐약 가능



리카(막냉이, 16)

- 요리 잘하는 남자
- 뭔가를 부탁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하면서 다 해주는 사이보이
- 지난 번 나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뻔한 이후로 부쩍 걱정이 늘었다.

가족소개



안리, 한리, 수리 남매

- 분탄언니의 아들, 딸
- 귀요미 삼대장
- 땀겨삐약+남반 사랑쟁이들
- 매일매일 싸우고 울어서 끼앙의 분노를 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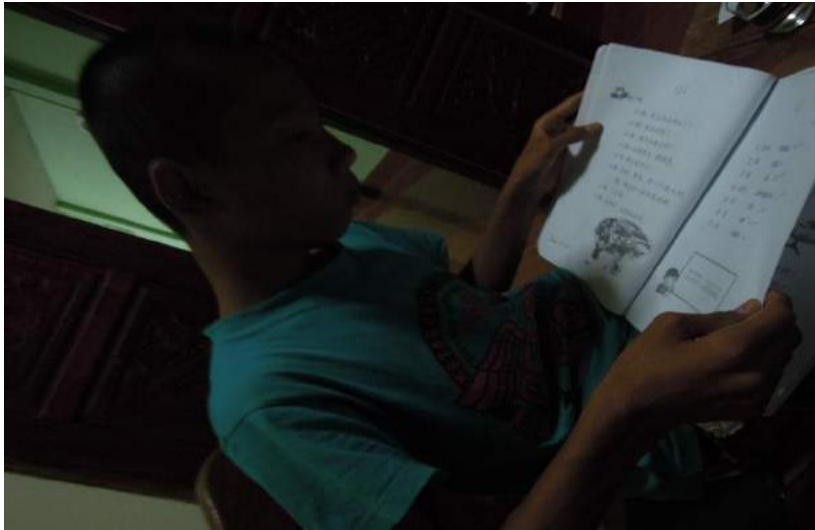
친구소개



캄숙과 팔, 분과 쏬은 각각 나에게 한국어,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다.

캄손과 시몬은 우리가 현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친구소개



플(학생, 15)

- 나의 중국어제자
어려운 한자도 잘 외운다.
- 나는 라오어를 잘 모르고,
은 영어를 잘 몰라서 중국어로 소
통하는 중

떡, 따, 산리, 핼, 팀, 풍, 리



친구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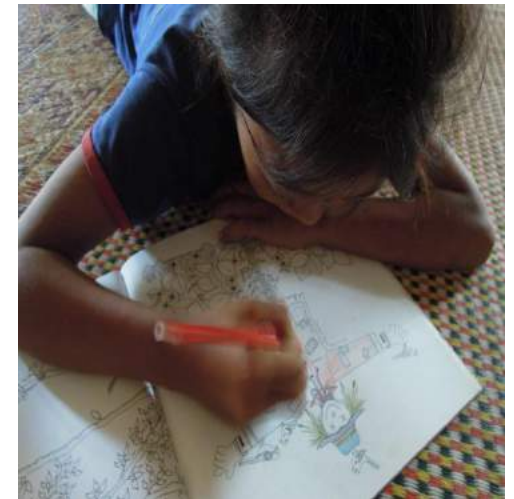
갑론(벌레사냥꾼, 25)

- 비양싸마이에 살고 있는 새로 사귄 친구
- 콘 까올리라는 소문이 있으나 소문은 소문일 뿐



뽕떡, 따몬, 핼파

- 매일매일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귀염둥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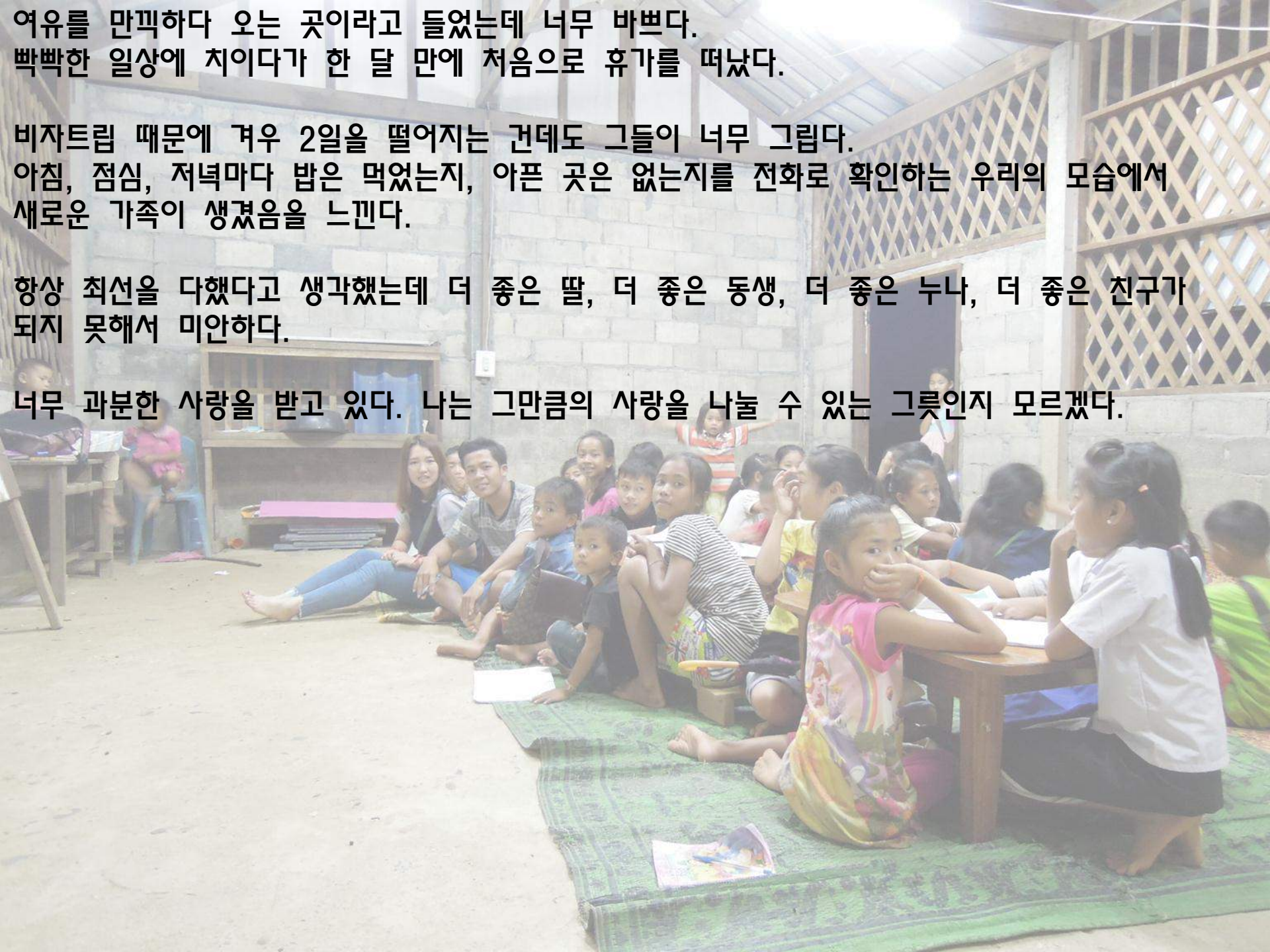


여유를 만끽하다 오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너무 바쁘다.
빡빡한 일상에 치이다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떠났다.

비자트립 때문에 겨우 2일을 떨어지는 건데도 그들이 너무 그림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밥은 먹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를 전화로 확인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음을 느낀다.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좋은 딸, 더 좋은 동생, 더 좋은 누나, 더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그만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릇인지 모르겠다.





캄퐁의 '비앙싸마이'

(크무족+라오족)



행복이 넘치는 가족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가족들입니다.

가족 소개



용(아빠)

무뚝뚝하시지만 정이 많으신 아버지



마(엄마)

사소한것 까지 신경써주시고 배려해주시는 어머니



야(할머니)

크무어가 잘 안되는 나에게 항상 말을 걸어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할머니

가족 소개



캡톤(나)

겉으로는 강해보지만 속은 여리다. 별명은 레이디보이,붓다,곰 또한 뱀고기,땀까우삐약을 가장 좋아한다.



깨오(첫째동생)

나케유스센터에 근무하여 가끔 볼수 있지만 진심있고 배려있는 동생인지 알수있다.



켓(둘째동생)

가끔씩 카약킹 일을 하고 있지만 켓과 함께 다이나믹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

가족 소개



아사(셋째동생)

개구쟁이 동생이라서 심심할 틈이 없다. 가끔 장난끼로 삐치기도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웃고만다.



마니(넷째동생)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여 보는 사람또한 힘을 얻는 존재이다. 살림,운동 또한 게을리 하지 않는 부지런한 동생이다.



콩(막내동생)

손재주가 많은 동생이다.
(헤어컷,악기,춤,고기잡기,
기타 등)

또 다른 가족 소개



그의 이름은 메오 가족들에게 귀여움을 독차지 하는 녀석이다. (메오가 아닌 기남일수도 있다는 소문이 들림!)



가끔 밥만 먹으로 오는 녀석이지만 지금은 여섯 마리의 어미로써 귀여움을 받는다.

우리집 소개

집 내부



부엌

화장실

센터 소개



외부전경



내부전경

센터 수업



평일 :16:00에 오픈하여 17:00 ~ 18:00 까지 영어수업,한국어 수업을 진행
(격일로 수업을 진행한다.)

주말 :17:30에 오픈하여 18:00 ~ 19:00 까지 LAO,POP,K-POP 춤을 진행
(몸치인 나도 열심히 아사를 따라 배우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이다.

점차 나아질 모습을 상상하며 최선을...)

한국어 수업



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한국어수업으로는 부족하여 마을 친구들이 평일 20:00~21:00까지 한국어 수업을 하러 집으로 찾아온다.
(학생이 종종 바뀌어 혼란이 일어나지만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다.)

소소한 행복



코코넛 열매가 딱딱하여 칼을 이용하여 껍질을 벗기고 있다. (칼질이 서툴지 않아 아사에게 좋은평을 들음)



캣과 함께 남송강에 가서 고기를 잡았다. (몇 마리 잡지 못하여 풀어줌)

소소한 행복



나케유스센터에서 지내는 깨오와 짬이 집에 들러 우리는 남송강을 지나 숲에서
락오식 ‘고사리’, ‘우엉’ 을 잡으며 자급자족하였다.
(맛 또한 한국 ‘고사리’, ‘우엉’ 을 연상 시킨다.)

소소한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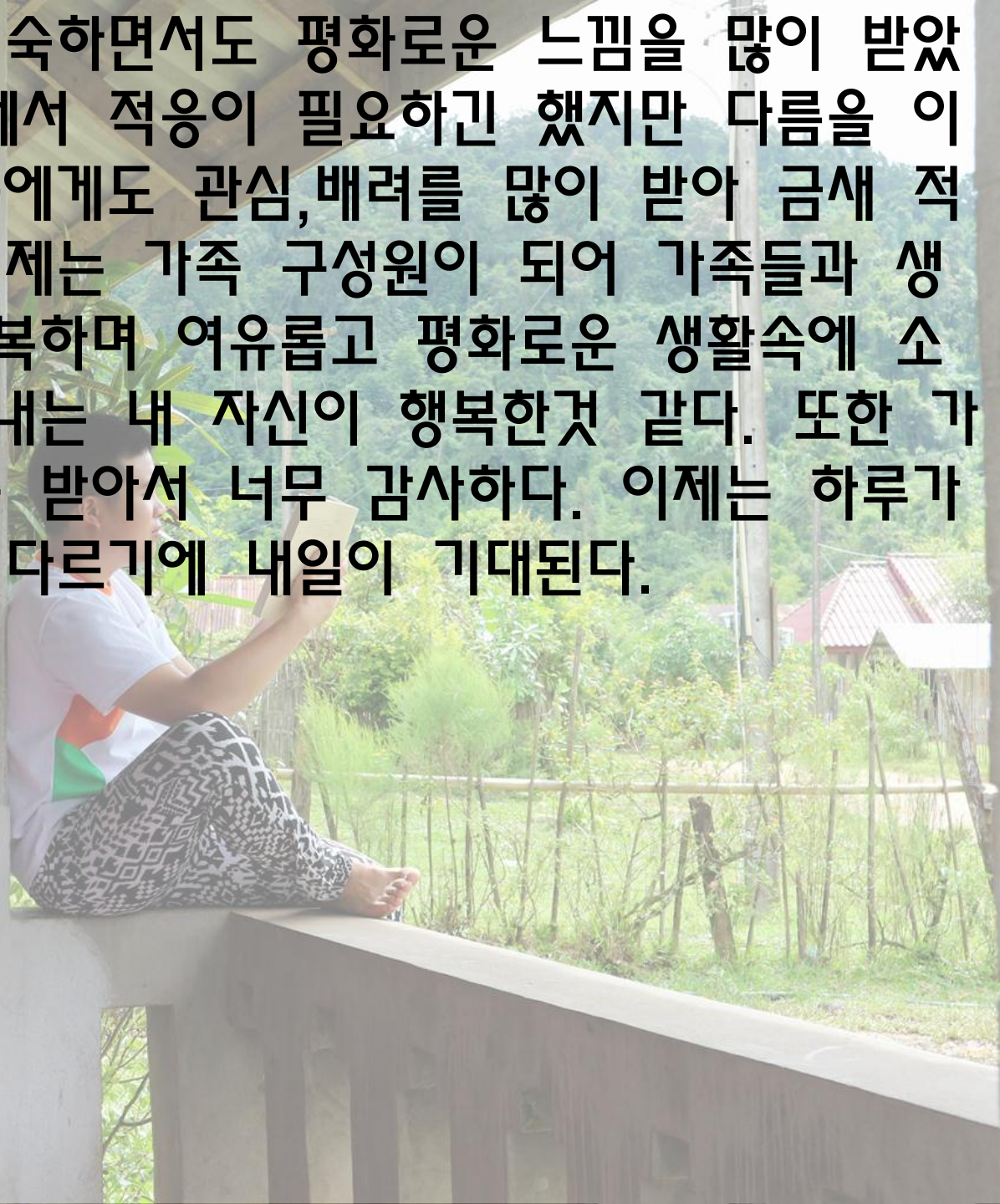
깡이 머리를 밀었는데 시원해보여 나 또한 동참하였다. 한 동안 러(잘생겼다)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깡과 나는 붓다라는 소리를 한동안 들으며 웃음바다속에 살았었다☺
(라오는 태국 영향을 많이 받는다. 태국에서 유행하는 헤어컷이기에 깡과 나는 만족하고 시원해서 너무 좋다.)

소소한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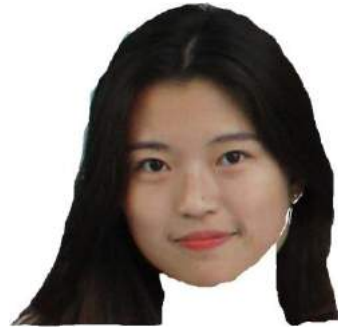
센터에 부러진 배드민턴채가 전부였는데 새로운 배드민턴채가 생김으로써 나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이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하였고 요즘은 배드민턴 열풍이 일어났다.(한국에서 나의 취미생활이었기에 이런상황은 나에게 행복감을 준다.)

마을에 도착하였을때 익숙하면서도 평화로운 느낌을 많이 받았었다. 물론 생활적인면에서 적응이 필요하긴 했지만 다름을 이해하려고 했고 가족분들에게도 관심,배려를 많이 받아 금새 적응을 했었던것 같다. 이제는 가족 구성원이 되어 가족들과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하며 여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속에 소소한 삶들을 보내며 지내는 내 자신이 행복한것 같다. 또한 가족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는 하루가 비슷하지만 느끼는점이 다르기에 내일이 기대된다.





캠라



따노이 의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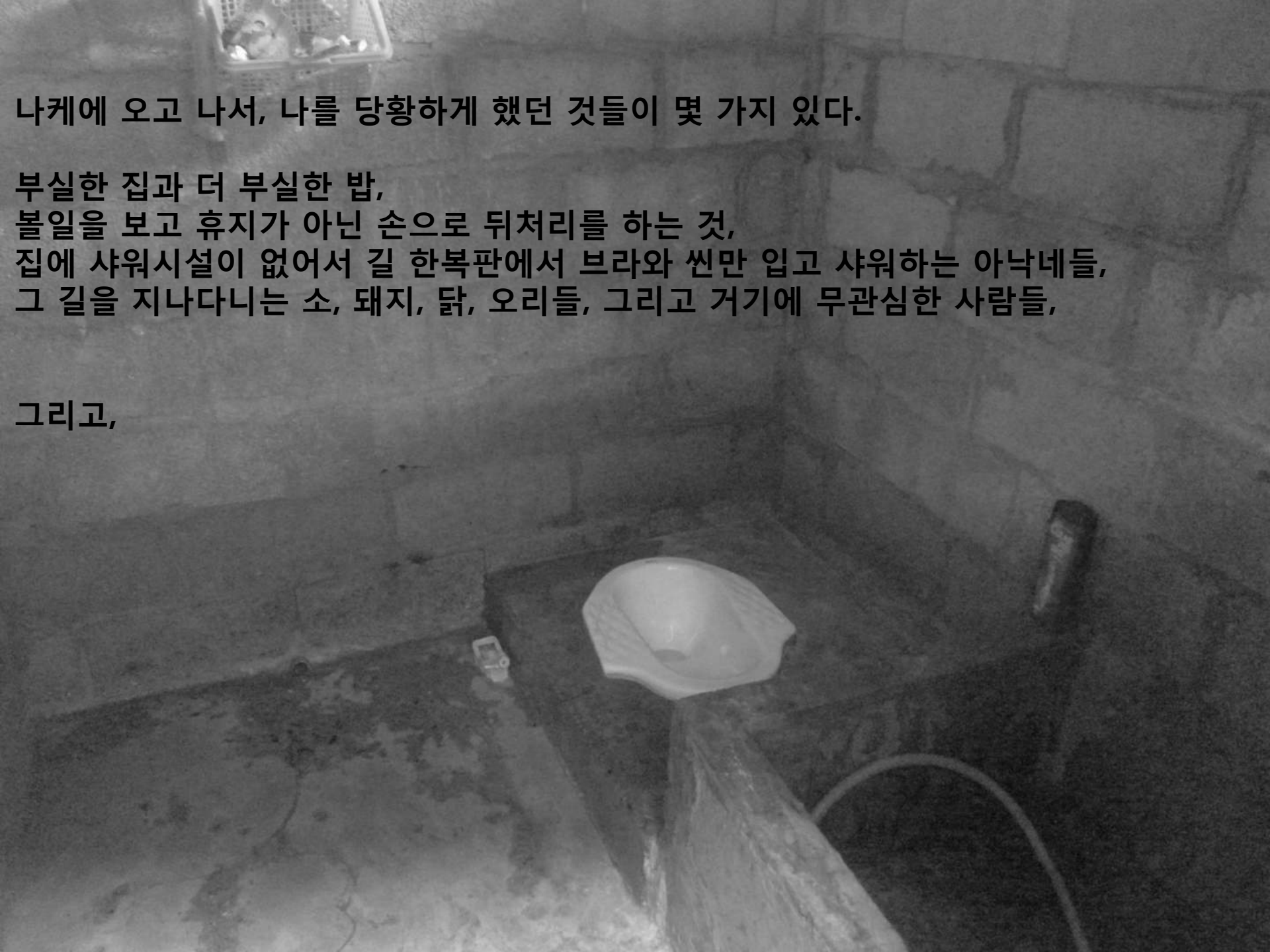
나케



나케에 오고 나서, 나를 당황하게 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다.

부실한 집과 더 부실한 밥,
볼일을 보고 휴지가 아닌 손으로 뒤처리하는 것,
집에 샤워시설이 없어서 길 한복판에서 브라와 씌만 입고 샤워하는 아낙네들,
그 길을 지나다니는 소, 돼지, 닭, 오리들, 그리고 거기에 무관심한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적응하고 어느덧 덤덤해진 나.

나케는, 사람 사는 곳이다.



다희 says

초록 세상과 파랑 세상이 만나는 곳, 나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도 초록 세상 파랑 세상,
이 길이 끝나 다음 길이 펼쳐져도 초록 세상과 파랑 세상,
다음 길은 보이지 않지만 다음 길도 초록 세상과 파랑 세상
이 날 반겨 줄 테니 앞으로 나아감이 두렵지 않다.

About 나케

보았니, 나케의 밤하늘.

나케의 하늘에 별들이 수놓은 밤이면, 입이 다물
어지지 않는다. 그 별들 밑에서 걷는 기분은 마
치 **동화 속을 걷는 기분.**

라오스, 이곳 나케에서 나는 초록과 파랑으로 채워진
세상 속에서 수많은 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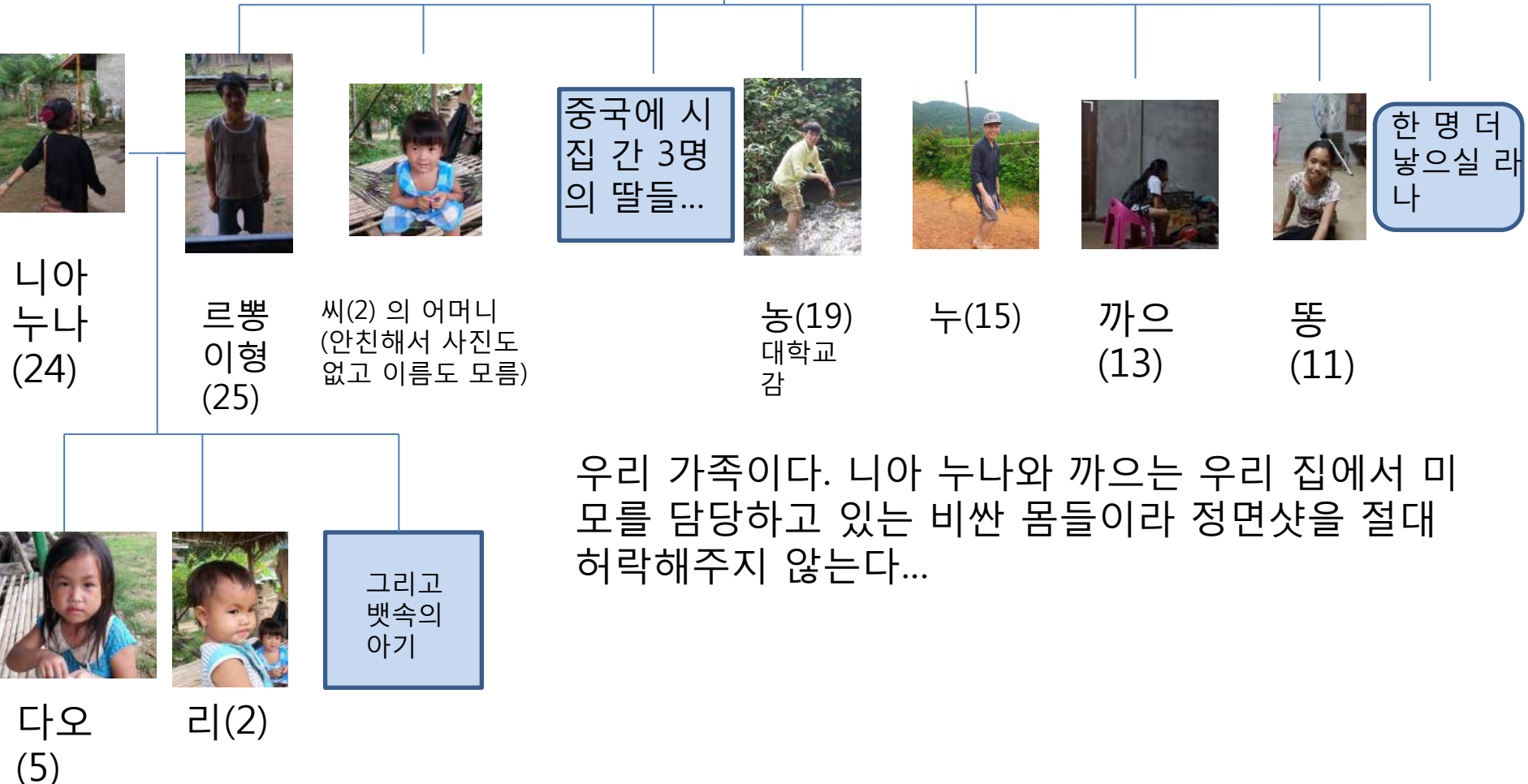
재만 family



아빠
(54)



엄마
(49)





카메라를 들이밀면 수줍어하면서도 곧잘 모델이 되어주는 너무 이쁜 내 동생들.

다희 family



닝 & 땡 & 바오 & 버이 사랑스러운? 동생이 네 명이나 생겼다.



매일 밤. 그들과 사랑을 나눈다..

사실 지금은 좀 시들해졌다.

나케 센터 이야기



나케 센터는 4시 50분 ~ 5시 30분까지 한국어 수업
5시 30분 ~ 6시 30분까지는 영어 수업 1,2가 열린다.

처음에는 꽤나 열정적이었다. 나름 뭘 가르칠까 체계적으로 생각도 해 보고, 클래스를 들어가기 전에 공부도 열심히 했었다.

수업 5분 전에서야 '오늘은 뭘 가르치지' 하고 센터에 들어오는 께오를 보며 뭐라 뭐라고 했었으나, 지금은... 둘이 같이 그러고 있다. 다희의 그림 실력을 보면, 다희도 썩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진 않다.

내가 이곳에서 느낀 바로는, 이곳 아이들은 학교에서 뭘 배워서 어떻게 써먹어야지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학교에 오면 친구들이 있고, 재미있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배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놀이로 생각하고 즐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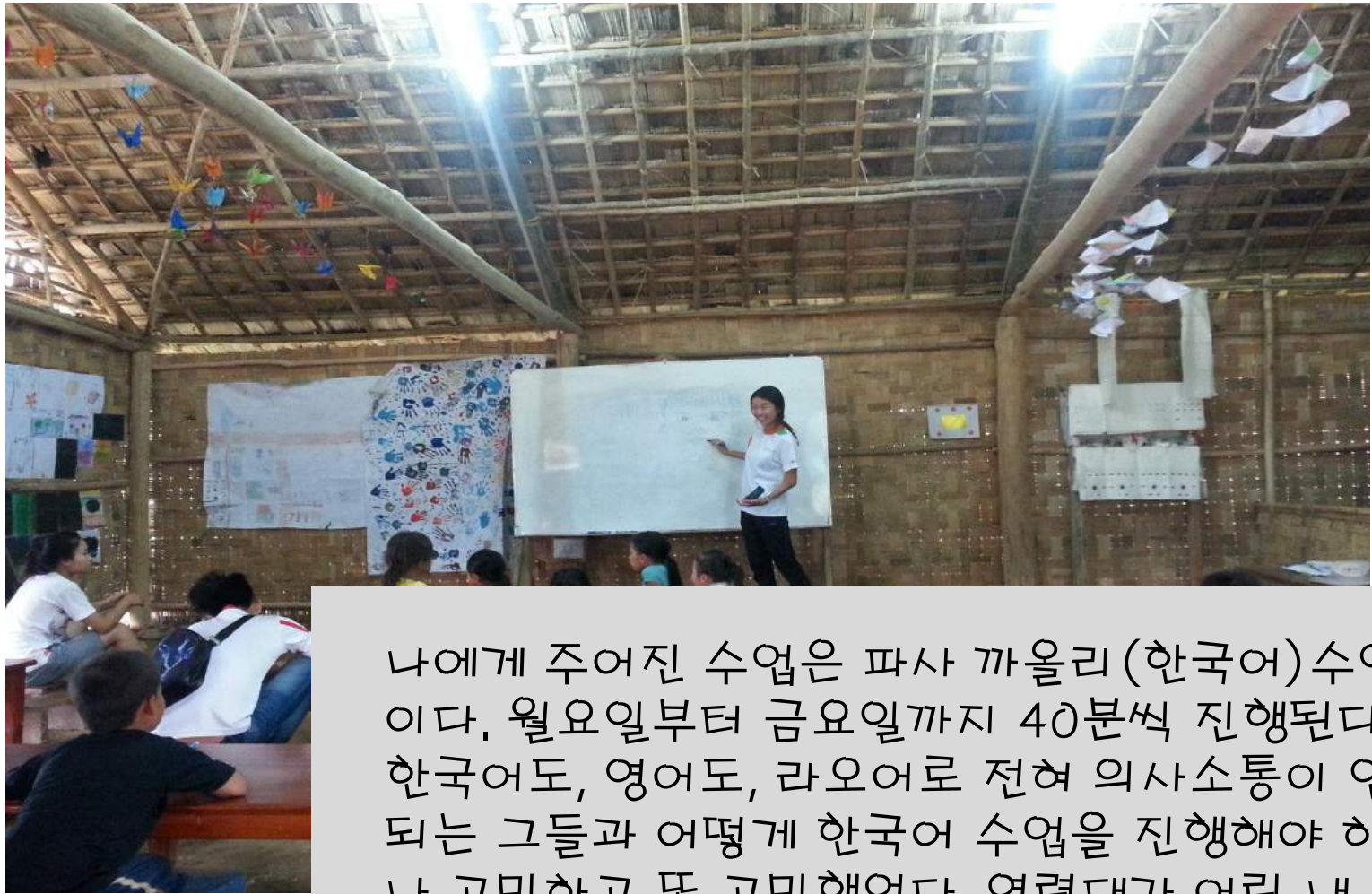
난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아이들만큼 즐기려고 한다. '오늘은 이것을 이해시키고 진도를 이만큼 빼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오늘은 문법 수업을 하기로 했지만 흥미로운 애깃거리가 생겼으니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하고,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조금 빨리 끝내고 놀까 하는 마인드로.

(내가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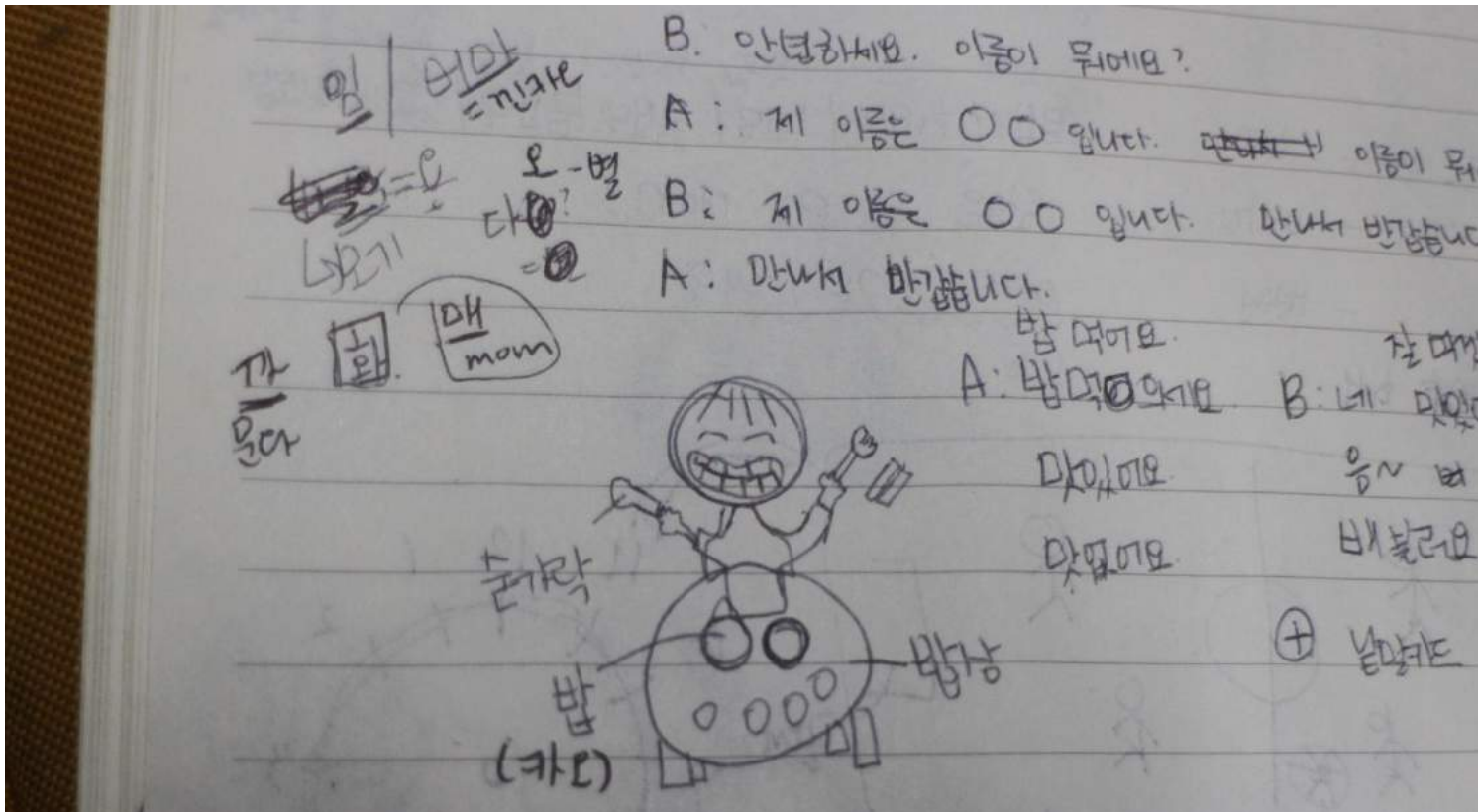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도 웃음거리고, 나의 어색한 뭉 발음으로 설명하는 것도 웃음거리다.

딱히 배우는 것도 없고 내가 좋은 선생님도 아니지만, 모두가 즐거워하고 만족한다. (아마도)

다희 수업



나에게 주어진 수업은 파사 까올리 (한국어) 수업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분씩 진행된다. 한국어도, 영어도, 라오어로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들과 어떻게 한국어 수업을 진행해야 하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었다. 연령대가 어린 내 라오스 첫 제자들을 위해 매일 밤 난 그림 연습을 시작해야 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 친구들과 한국어 수업을 진행 중
 이다. (수업 중 그린 그림을 보고 재만이가 그림 연
 습을 해야겠다고 했다. 재만아... 연습 한 거야...)
 아직은 단어 몇 개만 말하는 정도이지만 언젠가는 한
 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파사 까올리 수업 파이팅!

포 신 / 새말 / 키
 age number 407
 123

보고서에 어떤 말들을 써서 사람들을 감동시킬까.
내가 얼마나 뜻깊은 인생을 살고 있나 포장을 해볼까.
방금 전까진 불평불만을 일삼고 욕을 잔뜩 썼지만, 나의 행동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까.

난 이런 게 너무 싫다.
내가 이때까지 매일매일 쓴 글들을 보면 욕도 있고, 부정적인 말들도 많고, 나의 행동도 기분도 완벽하게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역경과 고난을 겪으며 성장하는 그런 영화 같은 스토리도 없다.
그래, 적어도 라온아띠를 처음 지원하며 기대했던 드라마틱한 영화는 이곳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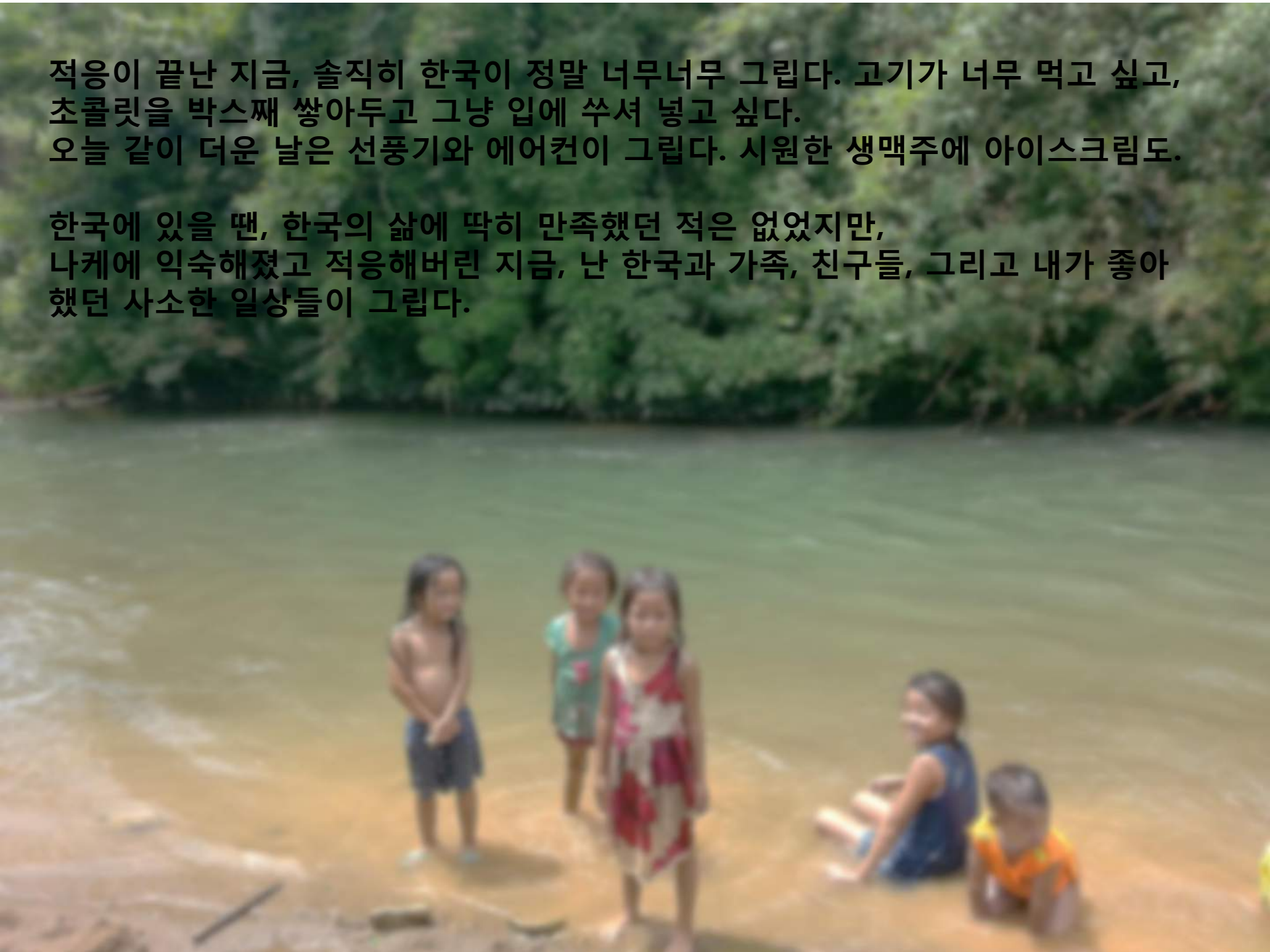
한 달이 지나고 적응이 끝난 지금,
난 어제도, 오늘도 순간순간 무료함과 싸워야 했고,
일어나기 힘든 아침을 맞으며 침대에서 뒹굴거렸고,
귀찮게 내 이름을 자꾸 부르며 따라오는 동네 아이들에게 '집에 가'라고 소리를 쳤다.

첫 짧은 설렘도 잠시, 이곳은 지루한 다큐가 되어버렸다.

무언가 인생의 변화를 바라고 온 내가 솔직히 우습다.
특별할 것 없는 이곳도, 그냥 사람 사는 곳이다.

적응이 끝난 지금, 솔직히 한국이 정말 너무너무 그립다. 고기가 너무 먹고 싶고, 초콜릿을 박스째 쌓아두고 그냥 입에 쑤셔 넣고 싶다. 오늘 같이 더운 날은 선풍기와 에어컨이 그립다. 시원한 생맥주에 아이스크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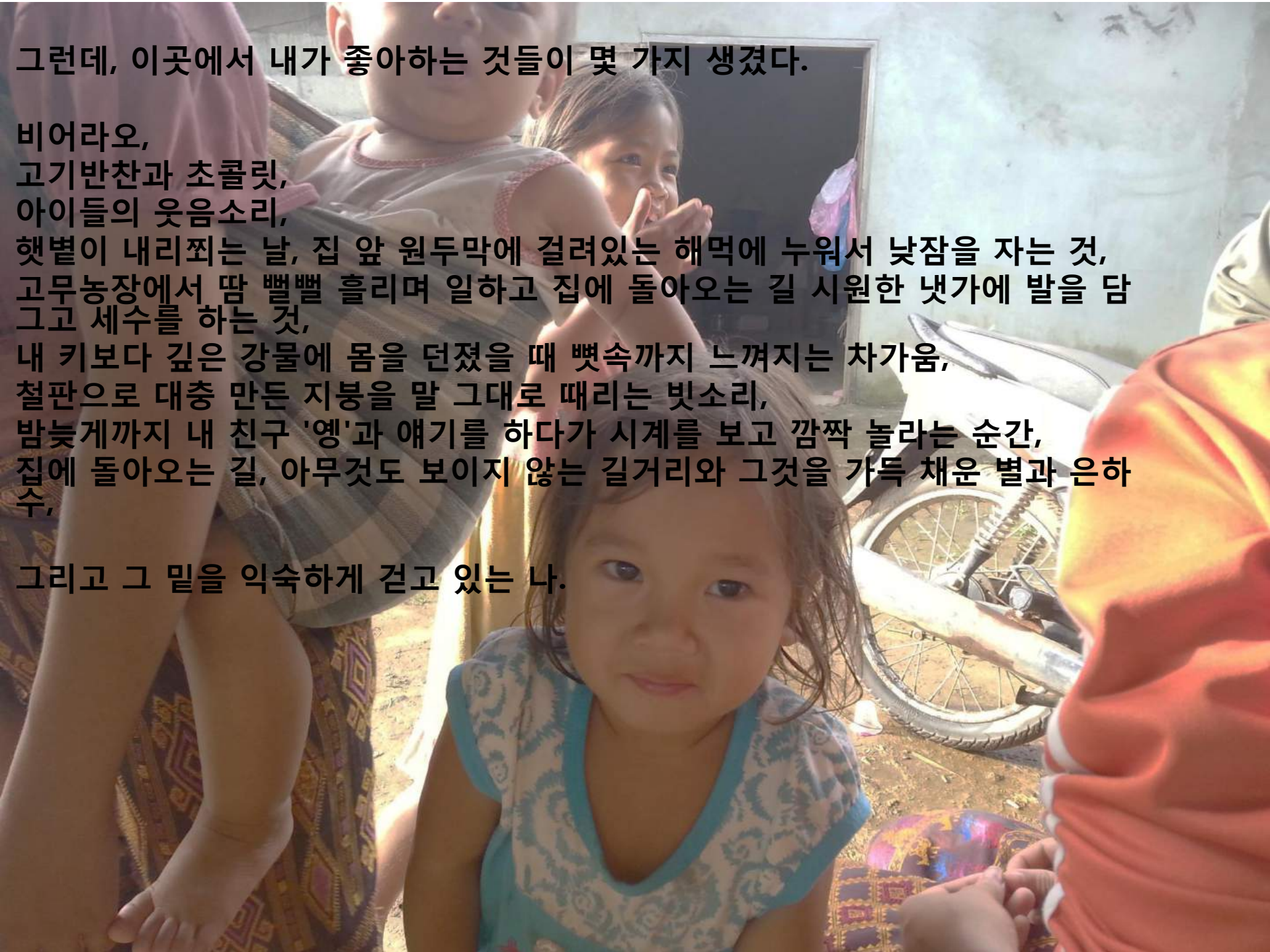
한국에 있을 땐, 한국의 삶에 딱히 만족했던 적은 없었지만, 나케에 익숙해졌고 적응해버린 지금, 난 한국과 가족, 친구들,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사소한 일상들이 그립다.



그런데, 이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몇 가지 생겼다.

비어라오,
고기반찬과 초콜릿,
아이들의 웃음소리,
햇별이 내리쬐는 날, 집 앞 원두막에 걸려있는 해먹에 누워서 낮잠을 자는 것,
고무농장에서 땀 뻘뻘 흘리며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시원한 냇가에 발을 담
그고 세수를 하는 것,
내 키보다 깊은 강물에 몸을 던졌을 때 뺏속까지 느껴지는 차가움,
철판으로 대충 만든 지붕을 말 그대로 때리는 빗소리,
밤늦게까지 내 친구 '영'과 얘기를 하다가 시계를 보고 깜짝 놀라는 순간,
집에 돌아오는 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거리와 그것을 가득 채운 별과 은하
수,

그리고 그 밑을 익숙하게 걷고 있는 나.



오늘같이 더운 날은 에어컨과 아이스크림,
그리고 가끔은,
시원한 비어라도,
정말 뻗속까지 시원한 남뽕강도 생각이 난다.

너무도 지루한 매일매일이지만, 한국에서 그랬듯 그냥저냥 잘 보내고 있다.
이곳도 그냥 사람 사는 곳이다.

처음 이곳에 오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빈둥대며 보내던 내가,
지금은 거실에서 동생들과 같이 누워서 빈둥대며 보내고 있다.

이곳 나케는, 내가 사는 곳이 되었다.

나중에 나케를 떠나면 이곳이 그리워질라나?

“난 내 까무잡잡한 피부색이 싫었다. 하얀 피부색의 친구들을 부러워 했고 나도 그들처럼 하얗고 싶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르다. 내 동생들과 팔을 마주할 때면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과 색이 다르다. 그들과 다른 내 팔을 감추고 싶었다. 내팔을 가리켜 응암 (이쁘다) 자기 팔을 가리켜 버응암(안 이쁘다)라고 말하는 동생. 너 팔 이쁘다고 계속 응암라이라이 말 해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한 내 팔을 감추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저 미안한 마음.”

9월 19일 일기의 일부분이다. 계속해서 9월 30일의 일기도 잠깐 엿보기로 하자.

“이제 핑(내 동생)이 내 팔 보고 담(검정색)이라고 한다.”

...

검정색이 된 내 팔을 보고 속상해해야 할지. 그들과 비슷해진 내 팔을 보고 기뻐해야 할지.

하루는 라오비어를 너무 마셔 술병이 난 적이 있었다. 좋지 않은 몸으로 센터에 갔다. 결국 나는 토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계속 설사도 한다. 위에서, 밑에서도 나오는 불청객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데

“따노이 따노이 따노이 따노이 따노이”

나를 따라 화장실 앞까지 와서 부르고 문도 치고 장난 아니었었다.. 내가 좋아서 그러는 건지.. 고통스러워 하는 내가 신기한 건지.. 우스운 건지.. 모르겠다.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지금도 밖에선

“따노이 따노이” ...

훗. 그렇다. 난 나케 마을 꼬마 친구들의 인기 스타다. 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자량은 요정도만 하는 걸로.

받는 사랑과 관심이 너무 커 이 관심이 나중에 없어지면 어쩌지 미리 불안해 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그 관심과 사랑에 흠뻑 젖으려다.

'동서남북' 다시 엇갈려 나아 가겠지만



우리가 만난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말자.